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노모품(老耗品) ①

何處可笑 하회하소
命常熾然 명상치연
深藏幽冥 심재유명
如不求錠 여불구정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웃으라
이 목숨 언제나 불타고 있나니
어둡고 깊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
등잔을 찾을 줄 모르는구나

見身形穢 견신형범
倚以爲安 의이위안
多患疾病 다상치병
豈知非眞 기지비진

제 몸의 생김새를 바라보라
거기에 기대어 편안타 하는데
망상 투성이에 병이 따르니
그것이 참이 아닌줄 알고 있는가

老則色衰 노즉색쇠
病無光澤 병무광택
皮緩肌疏 피완기축

“늙으면 형색이 낡은 수레 같이 되지만
법은 온갖 괴로움 없애니 힘써 배워라”

死命近促 사명근촉

늙으면서 형색은 시들어지고
병을 얻어 생기도 없어지며
가족은 늙어지고 살은 푸그러지고
죽음은 다가와 명을 재촉하네

身死神離 신사신사
如御藥車 여어거거
肉消骨散 육소골산
身何可惜 신하가호

몸 떨어지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버려진 수레를 보는 것같이
살은 썩고 백골은 흩어지니
이 몸을 어찌 믿고 의지하라

身爲如城 신위여성
得解脫處 득해탈처
生至老死 생지노사
但藏志慢 단장에만

이 몸을 성처럼 삼아서
빠로 기동세우고 살을 입히지만
태어나면 늙어 죽음에 이르는데

다만 상념과 교만으로 가득채우네

老則形變 노즉형변
喻如故車 유여고거
法能除苦 법능제고
宜以仿學 의이복학

늙으면 곧 형색이 변해서
낡은 수레같이 되고 말지만
법은 능히 온갖 괴로움 없애나니
마땅히 힘써 이를 배워라

人之無能 인지무문
老若特牛 노약특우
但長肌肥 단장기비
無有福慧 무유복혜

사람이 법을 듣지 못하면
늙음이란 저 황소와 다를 바 없어서
다만 자라서 살만 찰뿐
복덕과 지혜란 아무것도 없네

生死無聊 생사무료
往來難離 왕래간난
意猶貪食 의유탐식
生苦無端 생고무단

나고 죽음이 아무 뜻이 없다면
오고 감은 다만 괴롭고 힘든 일
마음이 이 몸을 의지하고 탐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일 뿐이네

慧以見苦 헤이견고
是故棄身 시고기신
滅意斷行 멸의단행
愛盡無生 애진무생

지혜로와야 괴로움 바로 보나니
그러므로 이 몸을 버리는 것
뜻 여의고 행업 짓지않으면
같은 다하여 무생인을 얻게되네

不修梵行 불수범행
又不富財 우불부재
老如白鷺 노여백로
守伺空池 수사공지

바른 행을 닦지 않고
재물조차 모으지 못하면
늙어서는 마치 해오라기가
한갓 빈 연못을 지키는 것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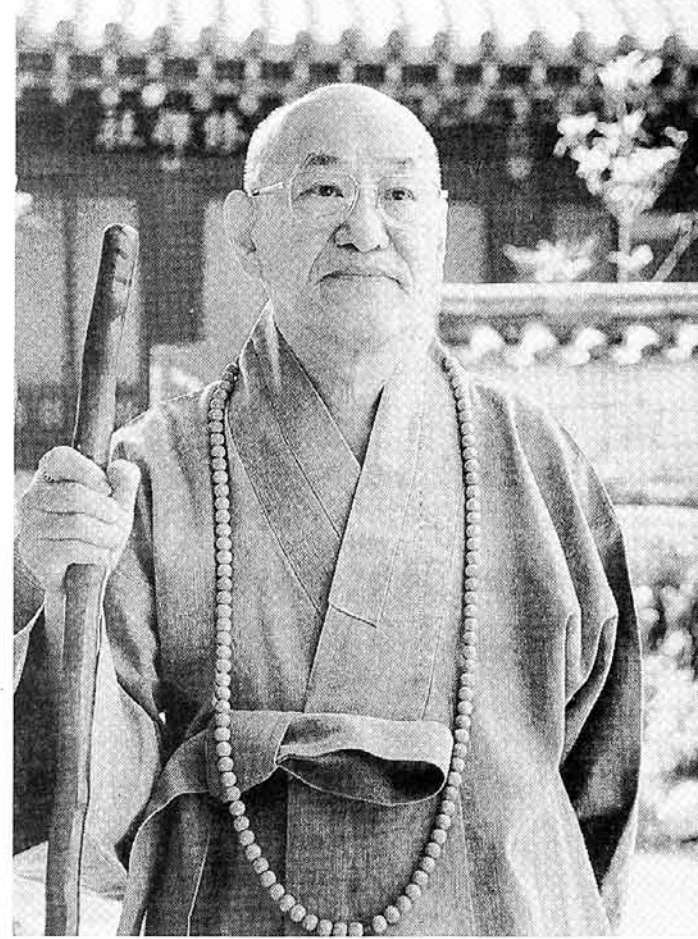
龍眼

능가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앞다투어 21세기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교실상은 2,3천년전 모습 그대로
입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구대의연하게
지탱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합니다. 아니 시대를
이끌어가며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교역시 21세기에 맞는 종교로 승가
제가 모두 심기일전하여 바르게 꾸러
나가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옛 시대가 개척해 있었으나 전제가 없
었던 때이라면 현 시대는 바야흐로 세계
화의 시대입니다. 개인중심으로 개인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도 천
하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
다. 지금 이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
두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계화의 물결속에 커다랗게 하나로 돌
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의식만
세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전체를 상대로 설한 경전은 오직
<법화경>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연담은
대로 <법화경>을 공부하려고 권해왔습니
다. <법화경>은 우주, 인류전체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경입니다. 한마디로 세계화
된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뜻이지요. 팔만대장경 속의
많은 경들이 세부적인 각론에 비유
된다면 <법화경>은 총론과 같은 경입니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임제스님도 중국
불교가 쇠퇴하는 것을 어찌지 못했고 사
명스님이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던 것처
럼 아무리 도통한 이라해도 개인의 힘으
로는 우주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수는 없
는 것입니다. 도인이라 해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지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체를 잡을수 있는 공부
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1923년 서울 생
- 50년 범어사에서 통신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계
- 56년 범어사에서 통신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계
- 58년 조계종 총무원 사무처장
- 60년 불국사 주지
- 69년 범어사 주지
- 70년 세계불교지도자대회 회장



“잘못은 덮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 덮으려하면 위선만 쌓이니
과감하게 드러내 바로잡아야”

대로 나빠져 있습니다. 백년전보다는 10
년전이 10년 정보라는 오늘이 더욱 나빠
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것이 없는것
만 못한 시대” 이 말입니다. 부처님 시
대 이래로 부처님의 십대제자 그이후로
는 백대제자, 또 그다음의 제자들 수백여
만명이 수천년동안 세상을 바로잡기 위
해 노력해 왔다면 지금쯤은 극락이 되고
천당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왜 세상은 더욱 나빠져만 가는지 한
번쯤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인 단체인 잘못된 것을 덮어둔
다고 능사가 아니듯이 불교계에서도 잘
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방법으로 4대교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4대교법은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합리
적이고 비판적인 진리인지를 세상 알게
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후에 어느
종이 나는 부처님에게 친히 이러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정법이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말아라. 그리고 거부하지도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의 진의를 잘 따져보고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줄거리와 맥락이 통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진리입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여러 검토
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4대
교법입니다. 또한 “백년뒤에 사람들이 무
리를 이루어 공부하면서 ‘이것이 정법이다’
해도 믿지 말아라” 했습니다. 또한 “큰
스님이 공부하시는데 시봉하면서 들었다
고 하면서 ‘이것이 정법이다’ 해도 믿지
말아라” 했습니다. 모두 부처님 생전의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口)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
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학연구원 <불교문화매거진> 동감 인쇄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김현준(金鉉竣)
現 불교신학연구원 원장
필간 <법공양> 발행인

불교신행성서 111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
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
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인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메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